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지침서
우수 학생의 경험담과 공부노하우

2020
A+학생들의 A+공부비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선진화센터

책을 펴내며

교육선진화센터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우리 대학에서 먼저 대학생활을 보낸先輩들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생생한 체험담이 실려 있습니다. 일반 학습관련 서적과는 달리 실제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인先輩들이 후배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심어린 조언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실린 10편의 에세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외대를 졸업하거나 고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ow to Learn'을 주제로 시간관리 전략, 전공/교양의 공부 방법, 리포트 작성, 발표방법, 시험 준비전략 등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적합한 학습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공부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뒤따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Contents

■ 책을 펴내며

■ A+학생들의 A+공부비법

알찬 대학 생활을 위한 팁

경상대학 국제금융학과 16학번 김도현

단순하게 공부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16학번 김민지

대학 생활, '빛나는 청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4학번 김선옥

평범해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Diplomacy전공 15학번 김정환

학점과 장학금 원 플러스 원, 놓칠 이유가 없다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전공 17학번 김채원

부러우면 이기는 거다!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17학번 노우진

즐거로운 대학생활: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통번역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16학번 박준하

코로나 시기에 로스쿨에 진학하기까지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14학번 장현승

모험의 시작, 보다 의미있게

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17학번 최지윤

	알찬 대학 생활을 위한 팁 김도현_경상대학 국제금융학과 16학번
---	--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학과 김도현입니다. 이렇게 후배님들께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며 제가 느낀 점을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하려고 했는데,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중전공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소속 광고.PR.브랜딩을 공부했습니다.

1.학점 관리

요즘 높은 학점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높은 학점이 무엇인가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중전공 선택, 교환학생 선발, 교내 활동 참여, 장학금 등의 부분에서 높은 학점은 대학 생활 중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학점 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수강신청-“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걱정되는 마음으로 강의 평가를 찾아보고 많은 고민을 하며 수강 신청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강의 평가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수업이 아니었는데 막상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즐겁게 참여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후배님들마다 선호하는 수업 스타일이나 과제 유형 등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의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보다 후배님들께서 정말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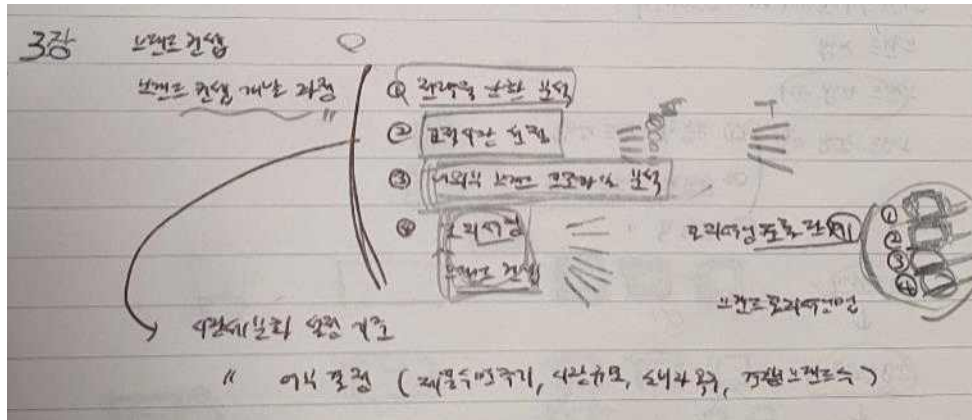
2)평상 시 공부 방법-“호기심 가지기”

일단 저는 본전공도 이중전공도 언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전공 학생들의 공부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듣고 필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주에 한 번씩은 지난 강의를 복습했습니다. 복습을 할 때 저는 최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이론이나 공식을 접하더라도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논문, 책, 신문기사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개념에 대해 깊게 이해함으로써 쉽게 잊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암기력이 굉장히 약한 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3)시험 준비 기간 공부 방법-“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저는 시험 기간 2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시작할 때 한 번은 천천히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주제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

리를 한 이후에도 저는 외우려고 하기 보다 자연스럽게 읽으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6번 정도 복습을 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한 덕분인지 회독 수가 늘어날수록 소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전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

4)시험 전 날 & 당일 준비 방법-“스스로 점검하기”

실제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 저는 다음 날 시험이 있는 과목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전에 주제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놓았던 <그림 1>을 펼쳐 놓은 다음 혼자 눈을 감고 내용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다시 강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두 번 정도 거친 후 저는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시험이 있는 주에는 시험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 낮잠 시간을 갖는 등 컨디션 관리에 힘썼습니다.

5)발표 및 레포트 등 과제 방법

발표와 레포트 등 과제를 할 때 저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논문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관련된 책 대여섯 권을 쌓아 놓고 읽기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때는 학교 근처에 있는 용인시 모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기도 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조사는 과제 주제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때는 “Flaticon”이라는 무료 아이콘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한 추천 활동

1)동아리 가입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내 연극 동아리 연결 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학점 관리와 함께 공연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가입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2)학교 혜택 이용하기

학교 도서관 사이트(library.hufs.ac.kr)에서 해커스에서 제작한 토익, 오픽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괜찮습니다. 토익과 오픽 외에

도 여러 인터넷 강의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교환학생, 7+1, 아너스 프로그램, 해외계절학기 등 참여해보기

우리 학교 특성 상 해외 교류 관련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 또한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기다 올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장학금, 듀오-코리아 장학금 등 교환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대학 생활 중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취업에 큰 도움이 안된다', '남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활동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삼아 참여했던 활동에서 큰 도움을 얻은 적이 있는 저는 의미 없는 활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공부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김민지_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16학번

먼저 저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아랍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유리한 상황에 있었음을 밝힙니다. 아랍어는 아무래도 생소한 언어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출된 시간이 길었으니 상대적으로 성적을 받기 쉬웠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아랍어를 공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아랍어 공부를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을 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공부 방법도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편입니다. 사실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무식하다면 무식하기까지 하답니다.

모든 언어 공부가 그렇듯, 지속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 단어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손으로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것이 가장 빨리 외워져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단어장 수가 감당이 되지 않게 늘어났고, 보관과 이동이 쉽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나, 퀴즐렛 (Quizlet) 이라는 단어장 어플을 알게 되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퀴즐렛에는 단순한 단어장 기능 뿐 아니라 단어 게임 기능도 있고, 또 단어장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어 검색 기능도 있고, 본인이 이미 입력한 단어도 알려주기 때문에 단어 공부와 복습에 용이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저는 언어란 직접 사용할 때 실력이 는다고 믿는데, 안타깝게도 아랍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실제로 사용해볼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라도 아랍어를 많이 써보자!'라는 생각에 교과서 본문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한 후, 제가 번역한 내용을 다시 아랍어로 작문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과서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작문하면 해당 본문을 다시 작문했어요. 그렇게 본문 하나를 교과서와 똑같이 작문할 수 있을 때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반복했지요.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문장을 확실하게 외울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 문장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말도 많아졌지요. 또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며 작문을 하니 나중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속도도 확실히 빨라졌고요. 아직까지 정확성을 높이려면 갈 길이 멀지만, 확실히 유창성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실제로 아랍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었기 때문에 아랍인만 만나면 붙잡아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외국인 친구를 만드세요'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외대의 특성상 외국인 친구를 접할 기회가 많은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귀찮았을 법도 한데, 제가 만났던 분들이 모두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또 아랍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아랍어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도전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어 말하기 대회, 아랍문화제 행사 자원봉사자, HIMUN 아랍어 통역,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인턴, CORE 하계 현지 조사, 국제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 참석, 아랍어 교직이수를 통한 교생 실습 등등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문화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뿐 아니라 아랍인도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 때 운이 좋게도 아랍인 유튜버 분의 영상에 출연할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HIMUN 아랍어 통역을 하면서는 아랍어도 많이 배웠지만 실제 통역 부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값진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을 만나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CORE 하계 현지 조사를 갔을 때는 카타르에서 미술관을 둘러보며 이슬람 예술과 현대 아랍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아랍어 토론대회에 참석할 때는 대한민국 대표 팀 일원으로 참석했던 덕에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랍어 교생 실습에 제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 중에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아랍어’ 하나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점인데 아랍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아랍어를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랍어를 공부하다 보니 솔직히 가끔은 지겹기도 하고 끝이 없는 공부에 지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거쳐 온 다양한 경험이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전공으로 EICC를 선택했었는데,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지만 성적을 좋게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공부법이라고 소개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다만 통역과 번역 특성상 정답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전적인 번역을 제출했을 때에 단순히 과제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는다고 느껴서 좋았고, 또 후회가 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어를 공부하다 어느 순간 ‘외국인으로서의 한계’가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 보다는 잘 할 수가 없구나’가 느껴질 때 서럽기까지 했지요. 그러다 보니 공부도 재미 없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해서 우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자니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얼마만큼 기대를 하든, 나는 그저 내 최선을 다 하면 되니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포기한 것일 수도 있고, 내려놓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 저도 때때로 패배감을 맛보고 푸그러들 때가 있어서 조언이랍시고 무언가 말하긴 민망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생활, ‘빛나는 청춘’
	김선옥_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4학번

‘빛나는 청춘의 승리!’

2015년 겨울, 맘을 뽼뽼 흘리며 풍물 동아리 정기공연을 마친 저에게 엄마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7년의 대학 생활 동안 제 마음은 참 바빴습니다.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공부,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발표 차례, 언제나 긴장되는 학기 말 성적 확인 등, 바쁠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는 늘 충분했고, 따라서 2015년 그 시절 엄마의 메시지에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씩 외대에 오셔서 함께 교정을 산책할 때, 엄마는 37년 전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금이 참 좋은 때야. 네 인생에 있어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나이가 들며 두고두고 추억하게 될 20대의 대학 생활, 청춘’

모든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앞둔 현재, 홀로 남겨진 기숙사 방에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에서야, 도서관 열람실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기숙사 휴게실에서 영어 발표를 위해 연습했던, (성적) 알파벳 뒤에 붙은 + 하나에 울고 웃는,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활동의 모든 순간들이 저의 ‘청춘’이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계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저의 대학 생활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생활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청춘’ 속 승리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시길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1. 강의평이 좋은 수업이 과연 최선의 선택지일까?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 중에도 수업에 대한 ‘강의평’은 수강신청 기간 중 단연 핫한 이슈입니다. 높은 별점을 받은 인기 수업들은 실제 수강신청 시에도 학생들에 의해 빠르게 클릭되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업이 나에게도 최선의 선택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들인 노력 대비 좋은 성적을 쉽게 얻는다는 소위 ‘꿀강’들이 주로 높은 별점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교수님, 학습 내용, 강의 교재, 평가 방식 등과의 케미(궁합)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의평을 참고는 하되,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의 수업을 수강**해보길 추천합니다. 저 또한 저학년 때 꿀강을 잡기 위해 노력했었고, 해당 수업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기를 마치고 되돌아보면, 성적을 우선시하여 수강했던 저의 욕심 때문에 그 수업에 배운 내용들이 추후 기억에 남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듣는 용기가, 중·고등학교를 벗어나 시

간표 선택의 자유를 가진 대학생이 누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잘 분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시간표를 짤 때 본인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에는 늘 시험기간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기간 중 하루에 (좋은 컨디션으로) 치룰 수 있는 과목이 최대 두 개였으므로 시간표를 짤 때 하루에 최대 두 과목만 담았고, 실제로 시험기간 중에는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 전체를 공장으로 비워둘 여유가 있다면 그 날 밀린 과제, 다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등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높은 학점을 얻기 위한 방법

0) Default Value

높은 학점을 받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성적 평가 기준 중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보통 10%)을 차지하는 출석점수는 만점을 기본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때 대학 생활 중 버킷리스트(?)라고 불렸던 일명 '출퇴'(출석 후 도망가기)는 상상 속에서만 해보는 것이 학점에 이롭습니다. 물론 출퇴를 하고 운이 좋았거나 혹은 교수님께서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주셔서 피해를 보지 않은 학생들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를 떠나 수업에 빠진다는 것은 그 날의 수업내용을 통째로 놓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에 빠진 후 착한 동기의 필기를 옮기는 것은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엔 적합하나, 수업을 직접 들으며 받아 적은 필기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새내기 때 출퇴를 딱 한번 해본 저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제의 종류에 따라 점수 또한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 말 높은 학점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과제를 정성을 들여서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과제에서 꼭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적어도 기본 점수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는 것은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하기입니다. 1학년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학점 관리하기에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갓 대학에 입학한 자유를 만끽하며 소홀해지는 경향이 큼니다. 나중에 재수강 혹은 초과학기(9학기)를 통해 학점을 어느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으며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렇기에 1학년 부터 학점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1) 공부 효율 높여줄 장소 찾기

다른 분들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을 공부 장소 찾기입니다. 물론 급한 경우 침대에 누워서도 공부가 잘 되겠지만, 평상시 자신에게 학습 효율이 가장 좋은 장소를 미리 찾아야 합니다. 저는 펜 소리까지 들리는 숨 막히게 조용한 곳 보다는 백색 소음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안에서도 독서실 책상과 같이 칸막이가 있는 책상보다 시야가 탁 트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오픈형 탁자에서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를 약간 의식하며 더 집중할 수 있기도 했고, 늘 앉는 자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내적 친분을 쌓고 늦은 밤까지 의지하면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2) 밤샘 금지

시험기간 중 다음날 아침 9시 시험을 준비하며 밤을 새 적 있습니다. 새벽 5시경, 너무 지친 탓에 살짝 눈만 감았다 떴는데 시험 시간인 9시를 훌쩍 넘어 9시 30분이었습니다. 제 대학 생활 중에 그 날만큼 제 행동이 날랐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숙사에서 지냈기에 서둘러 교실

로 가서 시험을 남은 20분 동안 쳤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성적이 잘 나와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지만, 그 날 이후로는 밤을 새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숙면의 중요성을 모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 3시에는 잠에 드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3) 공부 스타일 찾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며 다양한 유형의 수업에 맞는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소리 내어 제 자신과 대화하며 공부하는 스타일과 백지인출 방식의 공부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한때 중국어 관련 수업을 들었던 학기에는 집에서 벽을 바라보고 중국어 문장들을 외쳐가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짧은 대화를 읽더라도 감정을 살려 연습하면, 적으며 공부할 때보다 집중도 잘 되고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암기할 내용이 많은 과목은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백지인출을 하며 공부했습니다. 교재를 읽으며 제 나름대로의 목차를 작성하고, 나중에는 그 목차를 보며 흰 종이에 기억나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적어본 후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식이었습니다. 수차례 반복하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디테일한 지식까지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공부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업 방식에 맞게 노트에 적거나, 입으로 소리 내거나, 산책을 하며 암기하는 등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유연하게 바꿔가며 학습하는 것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3.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발표는 누가 할래?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도 발표는 늘 도전이었습니다. 적당히 준비하여 여차저차 해낼 수는 있겠으나, 마음에 쏙 들도록 잘 하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1학년 1학기에 들었던 ‘프레젠테이션스킬개발’ 수업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발표를 맡은 당일에는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꼭 가격이 비싼 옷을 입는다고보다는 자신을 단정히 꾸밈으로써 발표 당일 어느 누가 봐도 본인이 발표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더욱 자신감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그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발표 대본은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대본을 손에 쥐는 것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발표 도중 흐름을 놓쳐 대본을 보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주체할 수 없이 대본에 눈이 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어릴 적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을 당시 암기한 내용을 까먹어 잠시 대본을 본 것이 화근이 되어 발표를 마칠 때까지 줄곧 대본을 보고 읽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본 대신 발표의 흐름을 빠르게 참고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적힌 큐시트(큐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표 모습을 녹화하거나 지인 앞에서 연습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본인이 모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청중 앞에서 발표할 때 그 습관들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발표 모습을 파악하고 피드백 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발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기타

1)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참 소중한입니다. 진로 고민을 가지고 참여했던 두 번의 삼성드림클래스 방학캠프와 동대문구 영어체험교실, 전공 언어인 영어를 더욱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교내 언어교환프로그램, 중국어 공부를 위해 공자아카데미 중국 단기연수 참여 및 중국어 수업 수강, 신명나는 가락의 흥을 따라 2년간 활동한 풍물 동아리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진로 관련된 활동들이 중요시되는 요즘 현실이지만, 대학생 시절만큼 자유롭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편식 없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세운 저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계절학기 안 듣기, 그리고 재수강 없이 졸업하기. 처음엔 ‘과연 가능할까’ 싶었던 저의 욕심이 점차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 드리는 것은 **학교 홈페이지 자주 구경하기**입니다. 저는 1학년 때 부터 교내 홈페이지를 살살이 돌아다녔습니다. 학사공지, 채용공지, 장학공지 등을 참고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학기 업데이트 되는 수강편람을 자주 확인하며 미리 졸업요건을 파악하고, 남은 학기별 몇 학점씩 들을지, 무슨 수업을 어느 때에 꼭 수강할지, 졸업 전까지 방학에는 각각 무엇을 할지 등의 계획을 짰습니다. 그 결과 ‘NO 계절학기, NO 재수강’의 목표를 이루며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머릿속과 파일로 저장해놓는다면 보다 더 뚜렷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마무리하며

가끔씩 저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학교 1학년이라 대답하는 저에게 군대를 다시 가도 좋은지 재차 묻습니다. 저의 대답은 늘 ‘그렇다’입니다.

시간을 돌이켜도 똑같은 실수와 밀려드는 후회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할 걸,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걸,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할 걸’ 등 수많은 생각들이 저의 20대를 또다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의 실수와 후회들이 지금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지난 7년 동안의 대학 생활, ‘빛나는 청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해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정환_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Diplomacy전공 15학번

<A+학생들의 A+공부 비법>에 공부법과 관련하여 저의 노하우를 공유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열심히 살았던 지난 학기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대학교 생활을 한 것 같아 이제는 그만 졸업을 빨리 했으면 싶다가도 진짜 졸업을 할 생각에 이상한 기분도 듭니다.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 마지막 8학기는 공부와 학점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해 부끄럽기도 하고 저에게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저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제 나름의 학점 관리 방법을 떠올려보았습니다.

0. 목표를 갖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로써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4년동안 성실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학년 때는 막연하게 전공을 살려서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라든지 '좋은 학점을 받아두면 언젠간 쓸모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군 복학 후 법학전문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후에는 많은 학점을 국가리더전공 수업이나 교양 법학 수업으로 채우면서 공부해야 하는 양들이 배로 늘어났지만,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은 '고고익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공부에 열정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수업 똑똑하게 고르기

1) 학점 수 배분하기

특히 1~2학년 때 제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학점을 적당히 배분하여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학년 때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쁠 것을 예상하고 저학년 때 20학점을 꼭꼭 눌러 담아 수강하거나 다음 학기에 이월 학점이 생기면 무리를 해서 20학점을 초과하여 듣는 학우 분들도 몇몇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계획하에 이렇게 많은 과목을 잘 준비하여 학점을 잘 받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험이 다가오면 중간고사를 잘 본 과목 위주로 취사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재수강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재수강을 하면 시간적으로도, 학점 측면에서도 결국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학점을 듣고 3학점 과목 하나를 재수강하는것과 17학점을 들으며 조금은 여유롭게 학기를 보내는 것을 비교해보다면 당연히 후자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 필수과목 제때 듣기

저 또한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미네르바 수업이나 전공 필수 등의 과목들을 정해진 학년 때가 아닌 고학년이 되어서 수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중전공을 변경하거나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에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수강 신청할 때 생각보다 타 학년을 위한 자리 배정이 충분하지 않아 정말 심장 떨리는 수강신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필수 과목들과 시간대가 충돌하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할지 고민하면서 몇 날 며칠을 시간표를 수정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또 들어야하는 필수 과목은 나중으로 미루게 될 수 있어 제때제때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수업 관련 정보 얻기

이미 커뮤니티에 강의 평가가 많이 올라와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있겠지만, 수강 신청 전에 이것저것 알아본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가 많은지, 강의계획서에 없는 팀 플이나 발표 과제가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않는지, 플러스와 제로를 너무 칼 같이 나누시지는 않는지, 수업이 못 참을 정도로 지루하지는 않는지 등등을 저는 주목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을 좋아하면 그 수업 때 집중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교수님 강의력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고, 학점을 어떻게 주시는 지를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2.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기

1) 앞자리 앉기

예습 복습도 좋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급작스럽게 질문하시지는 않으실까 두려워 앞자리에 앉는 것이 꺼려했지만, 앞자리에 앉게 되니 칠판이나 화면도 잘 보여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자리에 앉았을 때 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경각심에 잘 졸지 않게 되어서 참여도도 높아졌습니다.

2) 필기

책 필기, 태블릿 pc 필기, 노트북 필기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노트북 필기를 선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많이 받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복습이 늦어져 머릿속에 남는 것이 적은 상황에서도 읽었을 때 마치 수업을 다시 들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노트북 필기를 주로 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최대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녹취록처럼 타이핑해두고, 복습할 때는 노트 정리 하듯이 내용을 줄이거나 두서없이 필기한 부분을 순서에 맞게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은 색깔도 넣고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3. 시험 대비

주전공인 LD전공과 부전공인 국가리더전공의 경우 논술형, 서술형, 약술형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상문제를 만들고 미리 답안을 작성해보는 공부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시험 전에 어떤 유형으로 시험이 나올 것이다, 몇 문제가 나올 것이다 등등 문제를 공지해주는 분들이 많으시고 가끔 친절하신 교수님은 한 문제는 어느 정도 쓰면 된다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답안으로 작성하기에는 너무 짧거나, 그 반대로 이 부분은 답안으로 구성하기에는 너무 길다고 판단되면 키워드 정도를 기억하거나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분량에 맞는 답안이 나오거나 특히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부분의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답안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미리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대학에 입학하고 들은 전공 수업 중 하나에서 교수님께서 제 답안이 글의 흐름이 좋아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아는 것을 전부 쏟아내면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내용을 암기해야하고 효율도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어느 정도 알차게 담으면서도 제가 작성한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론-본론-(결론)' 수준으로 글을 작성하다가 여러 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수님들이 목차를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것을 좋아하시

는 것을 알고 나서는(특히 국가리더 수업에서는 답안 작성법을 가르쳐주실 정도로 틀이 정형화 되어있는 편입니다!) 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제 손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공부 많이 되고, 저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는 몇 번 읽다가 시험 전날이 되면 형광펜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이나 키워드를 밑줄을 쳐가면서 회독 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펜으로 짹짹 지우면서 공부했는데,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조금만 더하면 된다는 생각에 자신감이나 안정감도 생겨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택형 시험이나 OX가 시험 유형인 과목은, 특히 교양의 경우 잘 보는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도 백지에 확실히 암기했는지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암기를 했습니다.

4. 국가리더수업 관련 팁

저는 3학년 때 이중전공을 변경했기 때문에 2년 내에 법 과목 45학점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 부전공으로 국가리더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학기까지 교양 이수 변경까지 합하여 34 학점을 이수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세 가지 정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공부했습니다.

1) 답안 작성법 익히기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도 종종 강조하시는 부분으로는 답안 작성법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답안도 깔끔하게 작성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론-본론-결론 구조보다는, 처음에는 문제 상황을 정리하거나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본론부분에서는 조문, 요건, 학설, 판례, 등 필요한 것을 적은 후 이를 토대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지금까지 도출한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검토사항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틀을 짜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2) 목차 암기

법학 수업이라 양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다른 수업에 비해 많아서 무작정 외우고 나서 책을 덮으면 생각나는 것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머리가 안 좋았나 싶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내용뿐만 아니라 목차도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차로 키워드를 먼저 잡고 살을 붙여 나가면 단계적으로 암기도 가능하고, 전체적인 구조나 체계가 함께 잡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법학 도서관 활용하기

교수님들께서 실제 판례나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도 많고, 객관식이나 OX 문제들도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선지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시험 한번을 위해서 책을 계속 사는 것이 부담되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법학도서관에 가 보았는데 수험서나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된 참고서들이 많아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수업 내용이 어려워 중요한 부분을 알기 어렵고 교과서가 읽기가 너무 힘들 때도 쟁점별로 정리가 잘 된 책을 함께 두고 정리하니까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적고 보니 별다른 특별한 비법은 없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만의 학습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대학 생활을 해쳐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학 생활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고 교재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있어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대학에 와서는 글씨로 뾰뾰한 전공서적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노트정리 등 공부법을 터득해야 하기에 분명 다른 방식으로 학업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대면 수업 및 시험과 치열한 상대평가를 처음으로 경험해서 당황스러움과 어려움을 느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점과 장학금 원 플러스 원, 놓칠 이유가 없다
	김채원_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전공 17학번

0. 들어가며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마냥 기뻐했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보니 스스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 성실하게 살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이왕 다니는 거 성적 장학금은 꼭 받고 싶다는 욕심만은 늘 있었습니다. 학점을 잘 받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인데, 거기에 장학금까지 준다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나름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는데, 그런 팁들이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제 전공 선택도 한몫을 했습니다. 입학 전부터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전공 외의 다른 공부에도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 전공이 언어라는 것, 특히 일본어 전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업 선택

(1) 자신만의 '꿀강' 찾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입니다. 학기 초에 보면 흔히 '꿀강'이라고 불리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의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꿀강이 나와 맞느냐 아니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꿀강이라도 나한테는 쥐약일 수 있고, 아무리 혹평을 받는 강의라도 의외로 나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꿀강이라도 열어보면 그 내용물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합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의 추천을 듣고 수강신청을 했는데, 정작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아 한 학기 내내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강 신청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포트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 암기에 강한 유형 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나와 맞는 강의를 찾아야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자신의 타입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1학년 2학기쯤 되면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애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강의를 들어야 시험 기간에 괴롭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꿀강은 교수님이 성적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수업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학교 에브리타임의 강의 평가나 선배, 친구들한테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성적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수업의 경우, 수업이 어렵고 과제가 많아도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높은 확률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런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수님의 취향을 저격하라

시험 문제를 내고 성적을 매기는 사람은 결국 교수님입니다. 언어과의 경우 해당 언어를 잘하는 것이 큰 강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성적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지 등을 살펴보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내 주신 참고 문헌이나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참고 자료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은 과제를 제출하거나 공부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하였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 선배나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해당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시험의 경우, 교수님이 시험을 내는 방식은 매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잘 수집해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취향을 떠나, 어떤 교수님이든 수업에 집중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이 끝나면 없는 질문을 만들어서라도 무조건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착실한 이미지를 쌓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산점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정적으로 보일 일은 없습니다. 또한 교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과 별개로,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질문할 거리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자연스레 머릿속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의실의 1열 중불을 차지해라

1열 중불. 연극, 뮤지컬 공연장의 가장 가운데 블록, 맨 앞열 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콘서트든 뮤지컬이든 가장 앞자리에서 생생한 광경을 느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강의실에서도 1열 중불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시야에 닿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면 강의도 점점 듣기 싫어집니다. 휴대폰을 꺼낼 수도 없는 중앙 자리에 앉아서 나를 오로지 강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아야 합니다. (혹시 휴대폰은 하고 싶다면 교탁 바로 앞 책상 자리가 좋습니다.) 물론 1열에 앉는다고 다 집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맨 앞에 앉아놓고는 열심히 졸았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뒤에서 마음 편히 자는 것과 앞에서 교수님의 눈치를 보며 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1열 중불에 앉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2. 시험 준비

(1) 밤새우지 말고, 미리미리

밤새우지 말고 미리미리. 아주 뻔하고 평범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해도 저 역시 전날 벼락치기, 몇 시간 벼락치기로 시험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서 친 시험과 벼락치기로 친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면 해당 과목의 시험 바로 전날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업을 들을 때마다 완벽하게 집중해서 전부 외웠으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3주 전에 시험공부를 시작하고,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시험공부를 전부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에 교수님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전까지 모든 공부를 마무리한 후, 마지막 일주일에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험이 있는 마지막 주에는 7시 기상-10시 취침을 추천합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할 때는 7시, 통학을 할 때는 6시 반쯤 일어나서 8시 전까지 학교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1시, 1시 수업을 듣는 경우 8시 전에 학교 앞에 도착하면 시험 전까지 약 3-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시험 전 최종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못한 과목도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마지막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시험까지 1시간쯤 남았을 때는 뭐가 됐든 안 되었든 슬슬 공부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마지막으로 책을 덮고 그냥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2)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험 대비 방법은 '전부 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교수님이 주신 자료나 ppt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내용을 전부 외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모르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지에 얼마나 쓸 수 있느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해한 것'을 '아는 것', 혹은 '외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머리로 외우기보다는 직접 써 보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외울 때는 먼저 공부할 내용을 전부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의 큰 제목만 다른 곳에 옮겨 써두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제목별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써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리했던 내용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전부 채워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운 내용을 전부 외워서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따로 채워 넣을 부분이 줄어들고, 굳이 써보지 않아도 다 외웠다는 확신이 들 때가 옵니다. 끝까지 안 외워지는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시험 당일 등곳길에 달달 외웁니다. 그냥 머리로 외우거나 말로 내뱉어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험의 경우 답을 직접 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울 때도 직접 써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말로 내뱉는 것과 직접 문장으로 써 내려가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외우면, 예상 문제와는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하며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무엇을 했었는지 돌아보며 정리해보았는데, 쓰고 나니 너무 뻘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학점이 대학 생활의 전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다 다르니까요. 내가 학점을 잘 받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는 학점이 중요했

기에 더 욕심을 냈을 뿐입니다. 이 글이 저처럼 성적을 잘 받고 장학금에 욕심이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길로 나아가든, 여러분께 늘 좋은 결과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러우면 이기는 거다! 노우진_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17학번
---	---

■ 들어가며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단순히 질투하거나 좌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다보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한 욕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본인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을 부러워하기 보다는 능력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의 원어민 같은 발음과 번역 실력, 더 폭넓게는 대학생활을 온전히 즐기고 현재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선망하는 대상과 목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나아가 “업글 인간(upgrade+인간)”처럼 제 능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보람과 성취감을 즐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저의 공부법과 대학생활의 단편을 소개할 기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전부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시간관리]설 때도, 놀 때도, 공부할 때도 확실하게!

설 때도, 놀 때도, 공부할 때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부에만 모든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요 오래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할 일이 많아서 초조한데 무조건 쉬라거나, 모두가 “유노운호의 열정”처럼 열심히 놀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기준 무의미하게 허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했다는 죄책감이나 후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시간을 관리할 정신력과 체력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 통학시간을 활용해 팟캐스트를 듣거나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 확실한 잠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통학의 피로를 줄여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1년 반 동안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뒤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놀 때도 외출하는 걸 좋아한다면 몽그적거리지 않고 나가야 그 날 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다고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밤에 집중이 잘 된다면 밤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하고 도저히 밤에는 졸려서 공부를 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 덮어야합니다.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앉아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잠은 잠대로 못자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음날 알람을 50개를 맞춰서라도 꼭 일찍 일어나야합니다. 시간은 정말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 남은 시간이나 필요 이상으로 소모하고 있는 영역의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 등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시험공부]시험공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이!

1)명분을 만들자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정말 싫어해서 특히 시험공부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5회 이상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험공부를 해야 할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학 후 첫 학기는 수능을 위해 쏟아 부었던 노력을 갑자기 잃기 싫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1학기를 4.5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높은 학점을 받으니 제게 집중되는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과 학점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새로운 명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이고 관념적인 명분이 여러분에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학점이 주는 실질적인 이점도 정말 많습니다. 우선 성적장학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르바이트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갈 때나 이 중전공을 선택할 때도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2학년 여름방학에 좋은 성적을 유지한 우수입학생 중 한 명으로 선발되어 미국에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처럼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회들도 많습니다. 또 전공어를 활용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할 큰 명분을 만들었다면 매순간 책상에 앉을 작은 명분들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젤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단 걸 먹으면서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서 책상에 앉아야 할 명분으로 사소하지만 젤리 먹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2) 색깔을 활용한 반복 학습

시험공부를 할 명분과 의지가 생겼으면 이제 계획을 짜고 공부를 시작해야할 텐데요, 저는 보통 2주를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필기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2주 전에는 녹음한 수업을 한 번씩 들으며 교재나 유인물과 필기, 그리고 놓쳤던 부분을 모두 한 파일에 타이핑해 정리합니다. 이 때 되도록 풀어서 써야 다시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굳이 녹음을 듣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주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합니다. 언어 같은 경우 과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이핑한 한국어 문장만 보고 통으로 역번역했습니다. 처음엔 암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써보고 틀린 부분을 바로바로 체크하며 다시 씁니다. 1회독이 끝나면 두 번째엔 좀 더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번역해 틀린 부분을 다른 색으로 체크하고, 그때그때 모르는 단어를 노트에 옮깁니다. 다만 본인이 암기 속도가 느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통으로 역번역하는 과정은 가장 마지막에 한 번 정도만 해보고, 꼭 암기해야할 부분 위주로 빈칸을 뚫어 채워보는 걸 반복하는 걸 추천합니다. 비언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리한 파일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는데, 이 과정을 2번 정도 반복하며 점점 더 핵심적인 부분만 색을 바꿔가며 표시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2번 들은 상태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해 읽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될 겁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말 핵심인 부분만 최대한 간략하게 항목화하며 노트에 정리하고 빈 노트에 다시 그려보며 암기합니다. 시험 전날엔 본인이 정리한 파일이 아닌 교재나 유인물을 직접 보며 틀리거나 놓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거꾸로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를 상기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땐 위와 같이 공부해야할 부분들을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to-do list 형식으로 적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 [과제]무조건 눈에 띄려고 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하자!

레포트든 발표든 기본에 충실한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레포트에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들어가거나 재밌는 주제를 선택하면 정말 좋겠지만 수업 내용이나 지시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과제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발표도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형식의 템플릿을 사용하고 발표 중간 중간에 유머러스한 코드를 넣는다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발표 내용과 전달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를 이해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제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수업시간에 배운 부분 중 어떤 걸 활용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추가적인 논점으로 잡아서 본인 견해를 추가하거나 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 파악해야합니다. 이후 충분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기존의 견해나 지식들을 살펴봐야하는데, 보통은 구글링을 통해 신문기사나 전문적인 글들을 참고하거나

dbpia 등의 논문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또 기존에 구독하는 뉴스레터가 있거나 전문 사이트가 있다면 더 희소성있고 의미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주제가 정해지면 개요를 쓰면서 눈에 될 수 있는 본인만의 견해 논점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때 꼭 개요를 작성해 갑자기 흐름을 벗어나거나 진부한 이야기를 추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발표의 경우 대본을 숙지하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참고하여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경우 대본을 지참하되 미리 말을 하다가 쉴 부분, 강조할 부분 등을 표시해놓고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트레스]학기 중 스트레스를 가장 쉽게 줄이는 방법은 좋은 시간표를 짜는 것!

시간표를 짜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간의 고생으로 한 학기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공강 날을 만들고 수업 중간 중간 생기는 빈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수업과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업에 집중하는 것부터가 힘들고 과제나 시험을 위해 스스로 다시 공부해나가며 시간은 시간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감수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증 시험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 졸업 전 꼭 듣고 싶은 과목 등 필요한 과목들도 찾아보면서 능동적으로 시간표를 짜면 더 행복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 [인간관계]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오래 간다!

처음 입학하면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이 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졸업 직전까지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될 기회가 많습니다. 1학년 때는 별로 안 친했지만 고학년에 저학년 수업에서 동기를 만나 친해질 수도 있고, 이중전공을 같이 듣게 돼 친해질 수도 있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친해질 기회는 계속 생깁니다.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관계가 더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생활을 참여하지 못하거나 모두와 친해지지 못한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적대관계를 만들거나 벽을 치지만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혹시 교환학생 등 정보가 필요하다면 통해 통해서라도 선배들에게 물어볼 용기는 필요합니다. 선배들도 후배가 먼저 연락해서 물어본다면 보통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요!

■ [공부 외 활동]하고 싶으면 일단 하자!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학문적 소양을 기르고 개인의 성실함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공부법을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 앞선 내용에선 그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교내외 활동들이 어찌면 학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내활동으로 봉사동아리와 교지편집위원회를 했고, 1학년 말부터는 대외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특정 분야의 활동을 공략한다기보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활동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한 활동들이나 투자한 시간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대학생 때만 경험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기도 하고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또래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기회이고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엔 산발적인 경험들 같더라도 결국 모아놓고 보면 본인의 가치관이 나 대학생살의 크고 작은 터닝포인트가 반영된 본인의 이야기이니까 후회 없이 여러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지만 대외활동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니까 꼭 이 자유를 열심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거창해 보이는 활동이더라도 스스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카드뉴스도 만들어보고 기웃거리다보면 기회는 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지원해보세요!

■ 글을 마치며

짧은 분량 안에 4년간의 대학생활을 압축해 담으려니까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큼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성만 설정하고 스스로의 대학생활을 개척해 나간다면 제 다음 부러움의 대상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벌써 부러운 것도 같습니다.:) 그럼 후회 없는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기로운 대학생활: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박준하_통번역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16학번
---	--

0.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2021년 2월 졸업을 앞둔 졸업생으로서, 대학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입장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공부 비법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의뢰 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현재 제가 마주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주제였습니다.

‘변화’를 앞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신입생 여러분들이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또는 모든 학우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스토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글 속에서 주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학점,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대학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학점과 스펙 활동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핵심은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 학과 공부

1) 마음가짐 1: “왜 공부하는 거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기

저는 매학기 공부할 때, 이 공부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해 항상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유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독일 문학을 전공해서 석사생이 되겠어...”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공이든 이중전공이든,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공부를 할 힘도 안 나더라고요. 이와 더불어, 공부한 내용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대단한 목표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너 이 수업 왜 들어?”라고 물어보면, “학점 받기 쉽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라는 대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의 이유와 목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 공부 방법 - 미리미리 공부하기

이렇게 이유와 목표가 뚜렷하면, 공부할 때도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와 더불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학기말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항상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에 임박하여 수업 공부를 하는 것보다, 수업을 듣고 난 후 2-3일 내에 복습 세션을 가졌습니다. 최소 1시간의 복습 시간을 가진다면, 다음 수업을 더 유기적으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 걸쳐, 수업의 흐름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재미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읽는 공부가 아닌, 실생활과 연계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학 공부를 하는 이유와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가장 재미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식이 먼훗날에 쓰일 지라도, 뚜렷한 방향성이 있을 때,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공부했던 과목들 중 가장 낮은 성적을 받았던 과목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양 과목 중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동양문화 보다는 서양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 문화와 관련된 과목들은 흥미롭게 공부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접하는 중국문화를 흥미롭게 바라보려고 해도,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더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과 연계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에 대한 '목표와 이유'가 확실하다면, 모든 사물과 생각들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

2. 캠퍼스 라이프

마음가짐 2

1)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대학생활이 많은 것을 경험해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서 다음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주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때,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왜 이 경험을 하려고 결정했는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 대고 대외활동을 하게 된다면, 대외활동이 끝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무엇을 했는지 정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해내는 활동을 하며,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주는 힘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여행을 도와주는 가이드로서 활동도 하다가, 전공언어로 기사를 써서 매학기마다 발간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 활동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콘텐츠의 힘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투어 콘텐츠를 만들고, 독일어로 기사를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들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식을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적성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2)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꼭 가져야 하는 습관!: 기록으로 남기기

하지만 앞서 제가 드렸던 말들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신입생들의 입장으로서는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더더욱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감이 안 잡히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항상 기록으로 남겨 둔다면, 무의식 중에 내가 흥미를 가진 것들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큰 흐름을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SNS 채널에 기록을 남겨도 좋으니, 항상 경험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면,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 슬기롭게 목표 세우기

"공모전, 대외활동 등 스펙 쌓기."

위의 한 줄이 대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생활의 전부를 '스펙 쌓기'로 잡는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4년이라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스펙 쌓기'를 목표로 두는 것보다, '나를 알기'로 바꾼다면, 단 하나의 경험이라 해도, 그 경험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내면, 졸업을 하고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히 빛나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마음가짐의 중요성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명확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경험 또는 공부를 새로이 시작할 때, 목표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우세요.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가짐'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마음가짐이 뚜렷하다면, 4년의 대학생활 동안, 더 깊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로스쿨에 진학하기까지
	장현승_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14학번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14학번 장현승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대학생 선후배들만 봐도 능력과 스펙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취업 한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저에게도 2020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엇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비대면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 모든 게 새로워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저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매우 운이 좋게 2020년 하반기에 대기업과 로스쿨에 모두 합격하였고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개인적인 학점관리와 공부는 당연히 기본이었지만 저는 학교에서 최대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얻기 힘든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알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이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동아리 활동과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수업 시간은 시험 준비의 시작이다.

저는 절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지만 한 가지 원칙을 지킨 결과 5번의 성적장학금과 수석 졸업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원칙은 24학점을 수강하고 4.5라는 평점을 받았던 학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수업 시간은 시험 준비의 시작이다.'라는 원칙입니다. 저는 교내 중앙 토론 동아리 노곳떼 활동을 했고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시험 준비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2주 정도를 잡고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험공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수업 시간에 보통 앞자리에 주로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하다보니 매 수업에서 시험에 나올 법한 요소들을 스스로 선별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험에 적응할 수는 없지만 수업 중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체가 시험공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담기 위해 저는 수업 시간에 노트북을 활용하여 필기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에는 교수님이 주시는 자료에 없는 내용이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부분은 교수님이 중요하게 말로 언급하셨거나 스치듯 말씀하신 내용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그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강의 내용이 빨리 지나갈 때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업 자료에 바로 바로 첨부해서 정리하기에도 좋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용이했습니다. 물론 각자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말을 빠르게 하시고 강의자료 이외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저는 수업 시간에 열의 있게 참여했습니다. 물론 제 전공 자체가 소규모 수업이 많기도 하

지만 부전공인 경영학 수업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는 등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꺼리곤 합니다. 저 역시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 가끔 민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점수를 떠나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수업에 대해 열의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보통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2. 대학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면 토론 동아리 노곤펀

저는 전역 이후 교내 중앙 토론 동아리 노곤펀에서 활동했습니다. 인턴과 다른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에 채울 내용을 만들어주고 저를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토론 동아리 노곤펀이었습니다.

1) 훌륭한 부원들과 즐거운 대학 생활

우선 토론 동아리라고 하면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부원들 간에 이렇게 즐겁게 활동하는 경우를 다른 동아리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확실히 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즐겁게 활동하다 보니 학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학교생활을 매우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와 즐거운 학교생활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매우 끈끈하게 서로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외대 내에서도 학과 성적이 좋고 학업에 대한 욕심이 큰 부원들이 많아 스스로 자극을 크게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부원들의 장점을 보며 그것을 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모이게 되니 성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원들도 취업, 진학 등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많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학교생활을 열의 있게 할 수 있던 좋은 자극제였습니다.

2) 논리성 증진

토론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논리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해진 규칙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논리적인 사고의 틀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는 모든 부분에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취업 준비 시에 그리고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을 볼 때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3) 말하는 연습

학생들 중에 발표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발표를 하는 순간이 와도 점점 꺼리게 되고 연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 취업을 준비할 때 왜 그런 말하기 연습을 미리 하지 못했는지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토론 동아리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 전부가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토론 경험이 쌓이며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런 부분을 훈련할 수 있었고 언론사, 사기업, 로스쿨 등 여러 면접에서 덜 긴장할 수 있었습니다.

3. 다양한 경험은 자산이 된다.

대학에 와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척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쉬움이 크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론동아리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동아리 혹은 학회, 그리고 단체에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여러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했던 경험을 토론 동아리를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토론동아리를 하다 보니 생방송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7회 정도 출연했습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에서 발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여 면접에서 덜 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토론 프로그램 출연은 대학생이기에 할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제 모습이 나오고 추억거리가 된다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입니다.

토론 대회 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부원들과 팀을 꾸려 각종 전국 단위 토론 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저 역시 대회에 두 번 출전하여 한 해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인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킬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대의 프로그램인 팩트체크 HUFs 문화탐방대도 노컷페 부원들과 팀을 꾸려 다녀왔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되어 저희 팀이 직접 발로 뛰며 기회를 창출했고 결과적으로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인 장 지글러를 인터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여러 대기업, 언론사 자기소개서에 활용해서 최종 합격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 대학생활을 떠올릴 때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기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4.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며 집중해야 할 수도 있고,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에 절대 제 학교생활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분명 본인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 합격과 로스쿨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학 할 때는 모두 같은 선상에 있지만 본인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열의 있게, 그리고 기회를 찾아 열심히 생활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대학생활을 여러분들도 후회 없이 알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험의 시작, 보다 의미있게
	최지윤_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17학번

갓 입학했을 때 2년 동안 수험 생활을 했던 저에게 대학생활이란 설렘보단 두려움이었습니다. 명확한 꿈과 목표도 없었고 전공 공부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이 때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표를 찾는 것과 목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험은 시야를 넓히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목표는 직업적인 목표만을 말하지 않으며 경험은 여행, 대외활동, 공모전 경험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인간관계에서 얻는 간접적인 경험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험이라든 무의미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생각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 목표가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학점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졸업평점을 일정 학점 이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단기적으로는 A+이 아닌 그 수업에서 1등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매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께 대학생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엄청나게 특별한 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신발 끈을 단단히 매자

1)수업에 집중하기

모든 좋은 성적의 첫걸음은 수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잡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수업시간에 집중하자고 마음은 먹지만 힘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적인 몇 가지 장치들을 설정해 둡니다.

먼저 교양 수업의 경우 독강을 선호합니다. 친구들과 수업을 듣게 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수업을 빠지거나 집중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수업을 놓쳐도 친구에게 물어보면 된다면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혼자서 수업을 들을 경우 놓치는 한 번의 수업이 타격이 클 뿐 아니라 물어볼 곳도 없게 되어 수업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어느 수업이나 수업에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이나 뒷자리에 앉게 되면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집중력이 깨지고 저도 모르게 딴 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자리에 앉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만 보이니 그 학생들의 모습에 자극을 받고 집중하려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 한층 몰입도도 높아집니다.

2)공부는 미리미리

너무나 혼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모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이면 시작할 엄두도 안 나듯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당일 저녁에 책상에 앉아 배운 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당일이 힘들다면 여유를 두고 일주일 내에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당일로 좁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뒤 교과서를 보면 아무리 수업에 집중했어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이해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즉 수업을 마친 뒤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하는 것이 시간 효율성도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적으로도 하루 배운 것만 복습하면 되니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험기간을 보다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벼락치기를 할 필요도, 밤을 새서 공부 할 필요도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겠죠.

3)교과서가 메인, 노트는 서브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요약해놓은 노트로만 공부를 합니다. 저도 요약노트를 사용하긴 하지만 암기 확인용이나 시험 직전에 보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노트는 축약된 형태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착각하거나 헷갈려하기 때문에 교과서로 공부를 모두 마친 뒤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저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무조건 구입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며 교과서에 모두 필기를 한 뒤 최대한 많이 읽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눈으로 훑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직접 정한 규칙에 따라 펜으로 표시해가며 읽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헷갈리는 부분에 표시해가며 읽습니다.

교과서 내용의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그려질 때 노트를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저는 배운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트의 앞부분에 큰 챕터와 작은 챕터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 놓곤 합니다. 세세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이 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할 것은 미리 만들어둔 노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보지 않고 백지에 노트와 똑같이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손으로 요약한 것을 쓰되 머리로 교과서에 있던 설명과 앞 뒤 연관관계를 떠올려야 합니다. 설명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다시 교과서를 읽고 다시 백지에 써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나무가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큰 줄기부터 작은 가지들까지 모두 연결되어 머리에 남기 때문에 하나를 잊어도 유추해내기 쉽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2. 모험가가 되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정확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의 시간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히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학업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상에도 눈을 뜨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나면 바깥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달라질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1)교환학생, 여행

낯선 경험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관스레

시도 전에 겁이 나죠. 하지만 두려운 만큼 얻는 것은 많을 것을 장담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해외유학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환학생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나 다녀온 친구들은 낯선 곳에서 스스로 부딪쳐 얻은 경험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경험을 해보셨음 합니다.

여행도 낯선 경험을 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기간, 목적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며칠 해외로 떠나는 것부터 미술관이나 박람회에 방문하는 것 모두 여행입니다. 저는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예술은 여유가 되는 사람(?)이나 향유하는 거라며 외면했던 저였지만 우연히 방문한 미술관에서 예술은 대상을 막론하고 감정의 동요를 주는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예술을 즐기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학업으로 인해 지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저만의 도구가 되었고 슬럼프나 우울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낯선 경험 덕분에 저는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2) 동아리

저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저는 동아리 활동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우면서 취향, 취미에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미술 동아리에서 1년간 활동했었는데 미술전공자, 이공계 전공자, 상경, 언어계열 전공자가 모두 예술에 대한 관심 하나로 모여 토론을 하니 절로 시야가 넓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업으로부터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1,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3,4학년이 돼서도 동아리는 학업에서 벗어나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3)독서

직접경험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들은 독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있다면 저자가 겪었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 지식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느낀다면 한 번 더 사고가 확장됨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쁜 학업 생활로 독서를 할 시간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기를 추천 드립니다.

3.마치며

여러분들이 제 글을 참고하여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모험가가 되어 4년의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비록 허름한 신발과 옷을 가진 모험가로 시작하더라도 4년 후에는 완전 무장한 모험가가 되어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A+학생들의 A+공부비법

발 행 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선진화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우 02450)
전 화 02)2173-2127, 2761
팩 스 02)2173-2617
홈페이지 <http://eac.hufs.ac.kr/>
이 메 일 ctl@hufs.ac.kr



교육선진화센터(Education Advancement Center)

- ◆ <http://eac.hufs.ac.kr/>
-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교수학습개발원 304호
TEL. 02-2173-2127, 2761 / FAX. 02-2173-2617